

## ESG 트렌드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EU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권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앞으로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인권과 환경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실사를 시행해야 하고, 한국의 경우 EU 역외 기업에 해당돼 EU 내 순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약 6600억 원)를 초과하면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인권 경영이 이제 기업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구체적인 법적 리스크 요소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EU의 CSDDD 외에도 UNGP, OEDC 등 글로벌 규범, CSRD, ESRS와 같은 글로벌 공시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 기관에서도 인권경영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어요.

## 지금, 우리 회사는

건설기계부문 3사는 **지난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어요.

법적 사항, 인권 경영 최신 트렌드,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해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인사, 구매, 생산, EHS 등 각 지표 별 유관 부서 담당자 인터뷰와 각 사업장 현장 실사를 했어요. 우리 회사가 정책과 제도를 갖추고 경영활동과 사업활동 전반에서 인권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리스크가 없는지 진단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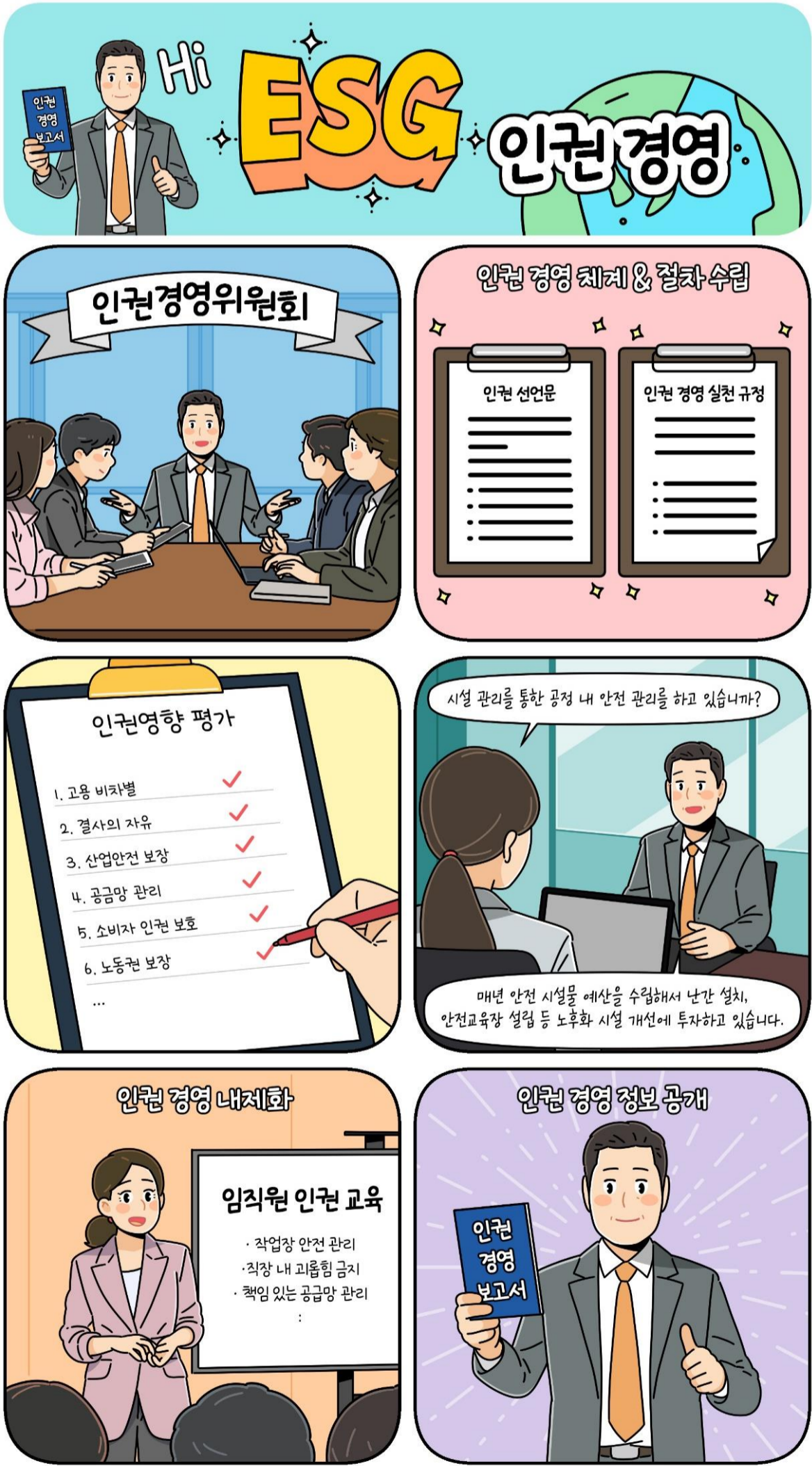
올해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리스크를 발굴하고, 각 유관부서 중심으로 정책·규정·제도를 정비하는 등 개선과제를 수행**했어요.

지난 10월에는 ESG경영위원회 산하에 **인권경영위원회를 신설**했어요. ESG 최고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여 법무, HR, EHS, 구매, 영업/마케팅, 생산, 정보보안, ESG담당 등 총 8개 부문의 담당 중역을 위원으로 구성했어요.

11월 내에 각 사 별 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해 인권 정책 및 개선 조치 결과와 25년도 인권 경영 추진 계획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재 실시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새롭게 발굴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과제를 이행할 계획이에요. 또한 내부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내재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국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성실히 보고할 계획**이에요. 또한 인권 리스크 관리의 범위도 국내에서 해외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 건기 3사 인권 경영 선언&실천 규정 (상세 내용은 각 사 별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D현대사이트솔루션](#)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

## Media Clipping

[유럽발 '인권·환경' 실사... 대변화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무화되는 인권 실사... '인권 경영' 시대가 온다](#)

[2027년부터 EU서 '인권·환경실사 의무' 위반 기업 과징금](#)

[EU, 반인권·환경훼손 기업 수출 제재](#)